

■ 교회소식 ■

1. **평화부 특강** : 오늘 오후 1:30 세미나실에서 “행복한 평화 쉬운 통일”이란 제목의 평화부 특강이 있습니다. 강사는 김진향 박사(여시재 선임연구원, 전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교수)입니다.
2. **종교개혁기념주일 특강** :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기념주일입니다. 오후 집회 시간에 이승무 박사의 ‘종교개혁의 사회사적 배경’ 특강이 있습니다.
3. **추수감사절** : 11월 5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기도하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 **나들이 사진** : 지난주 나들이에서 찍은 사진들을 25일(수)까지 교회홈피(자료실-사진자료실)에 올리시거나 chungpamethodist@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교회에 전시하고 시상도 합니다.
5. **신앙실천** :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나뭇잎을 오래 바라보며 묵상하십시오.

다음 주 설교 본문	미정
------------	----

	설교	기도	성경봉독
다음 주	1부 김기석	공동기도	인도자
예배위원	2부 김기석	이한림	박구병

10월	1부 영접위원	박미연	헌금위원	김민화
	2부 영접위원	김정민 허호범 황현성 박성실 정현숙 박미연		
	2부 헌금위원	하현철 최현옥		

오늘 식당 봉사	이현순 정현선 정영혜 박진숙 임옥기 유병선 박종철 추현영		
다음주식당봉사	박홍재 정연희 한상경 김태정 김영희 윤성종 최철수 한상균		
오늘설거지봉사	2남선교회	다음주설거지봉사	3남선교회
커피 판매 봉사	4여선교회	다음 주 주차봉사	박범희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어둠을 뚫고 솟아오르는 빛으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창조절 8주 】

인도 1부 : 김재흥 목사  
2부 : 김재흥 목사

- 전 주 ..... 반주자
- 임재의 기원 ..... 주님 나라는(×3) ..... 다 함께
-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 경배의 찬송 ..... 35. 큰 영화로신 주 ..... 다 함께
- ▲ 공동기도 .....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이제 해는 점점 짧아져 밤이 쉬이 찾아옵니다. 깊어지는 어둠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만큼 더 기도의 자리를 마련하는 이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빛 되신 주님을 대면하며 우리 내면의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주님, 말씀의 땅을 순례하고 있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하루의 여정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이 배움과 깨달음의 걸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간 모든 이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게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 다 함께
- ▲ 위로의 말씀 ..... 계21:3b,4 ..... 인도자
- ▲ 교 독 문 ..... 77. 요한복음 3장 ..... 다 함께
- ▲ 영 광 송 ..... 1. 만복의 근원 하나님 ..... 다 함께
- 2부대표기도 ..... 장원호 장로
- 2부응답송 ..... 찬양대
- 2부찬양 ..... 90.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 다 함께
- ▲ 성경봉독 ..... 엡 4:22-32 ..... I. 인도자  
II. 최형균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 찬 양 ..... I.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 현악 연주  
II.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 2부 찬양대

## ▪ 헌금 영수기 ▪

### 십일조 및 월정헌금

박해숙 신영옥 안미숙 윤영미 은종인 이근식 신영신 이준림 장기환 무명1

### 감사헌금

김태정 박진주 이상도 이은혜 임종수 정두리 정학성 김현숙 조순덕 최미자  
최형서 무명3


### 생일감사헌금

신영신

## ▪ 집 회 안 내 ▪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쉽	낮 집 회 / 설교 : 이범석 목사 저녁집회 / 강의 : 김재흥 목사

예배	시간	장소	예배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대예배실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4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청파교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oups/chungpa>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 마음으로 읽는 글 ■

몸

- 조동화

일흔 언저리인데 관절들이 뼈거덕거린다  
 위쪽을 바로잡으면 아래쪽이 틀어지고  
 오른쪽 받쳐주는 순간 왼쪽이 또 기운다

기계라면 벌써 몇 번 새 것으로 바꿨으련만  
 혼을 담은 이 그릇 부품마저 아예 없다  
 기워도 이내 미어지고 때워 봐야 금이 가는

아무나 넘볼 수 있는 봉우리가 아니거니  
 함부로 백세시대라 들먹이지 말 일이다  
 내려와! 준엄한 한 마디에 벗고 떠날 이 남루(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신진석  
 전도사 : 장영숙                      소속 목사 : 한인철 한정애  
 원로장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방문성 윤석철 한완식  
 장로 : 한상익 김인걸 박홍재 김정민 하현철 곽권희 장원호  
 지휘 : 강석남 안홍숙 한선희  
 반주 : 최윤선 김수진 김진선 김 린 이상미 김가현  
 교회 및 차량 관리 : 김현동

내 주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죄 주님앞에 다 회개하리  
 날 구하신 주님 내 주 예수님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날 구하시려 저 갈보리 고난 주 당하셨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뵈오니 이전보다 더욱 더 사랑합니다  
 나의 평생의 주 주 찬양하리 내가 숨쉴 동안  
 나 숨질 때 주님께 드리는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은혜 더하시리니  
 금면류관 쓰고 찬양해 찬양해 이전보다 더욱 더 사랑합니다

말 씬	.....	한 몸의 지체들	.....	이범석 목사
거듭기도	.....			다 함께
2부찬 양	.....	211.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	다 함께
▲ 봉 헌	.....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	다 함께
▲ 봉헌기도	.....			김재흥 목사
공동체 소식	.....			김재흥 목사
▲ 평화의 인사	.....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			다 함께
인도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사람이 되어 사십시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덕을 세우며 사십시오.			
다 함께:	아멘.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잊고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 나만의 아집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도록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 양	.....	635. 주의 기도	.....	다 함께
▲ 축 복	.....			이범석 목사

## ■ 믿음으로 읽는 글 ■

### 그분은 우리의 평화

떼제 동아시아 젊은이 모임의 여운이 오래 남았다. 2013년 10월 2일부터 닷새 동안 대전에서 열린 이 모임에는 한국과 일본, 중국, 타이완, 홍콩 등 동아시아 나라에서 3백여 명이 참가했다.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까우면서도 역사적인 이유로 멀게 느껴지는 한·중·일 세 나라 젊은이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기도하고, 대화하고, 노래하며 친구가 되는 시간이었다.

떼제의 모임이 늘 그렇듯이 하루 세 차례의 공동기도가 모임의 가장 중심이었다. 떼제의 기도는 잘 선택된 성경 말씀과 반복해서 부르는 묵상 노래, 침묵과 짧은 기도문으로 이루어진다.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등 5개 언어를 기도 때마다 사용했고, 이번에 함께한 다른 참가자들의 모국어(독일어, 스페인어, 크메르어 등)로도 짧은 성구를 읽었다.

떼제의 노래는 영어와 라틴어 위주로 하되, 스페인어, 이탈리아어로도 한 곡씩 불렀다. 한국말이나 중국말로 모두가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입니다”하고 한국말로 노래했다. 다양한 언어는 교회의 보편성을 자연스럽게 보여주었다.

여러 나라 말로 기도하는 데에 익숙한 나지만, 일본말로 노래할 때는 더 특별했다. 3백 명에 가까운 청년들이 한목소리로, 일본의 정서가 느껴지는 가락에 일본말로 노래한 것이다.

미요, 교다이가 도모니 스와떼이루! 난토 이우 메구미, 난토 이우 요로코비!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것!)

일본 참가자는 12명에 불과했지만, 그 노래는 닷새 동안 이룬 우애의 공동체를 드러내기에 충분했다. 반일(反日)교육과 그런 정서 아래 유년기와 청년기를 보낸 우리 세대는 한국, 중국, 일본의 젊은이들이 신앙 안에서 하나로 어우러지고 아무 거리낌 없이 일본말로 함께 노래하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졌다.

일본 젊은이들은 마지막 날 오후에 열린 ‘동아시아 우정의 축제’ 시간

에 <임진강>(고종환 작곡, 박세영 작사)을 준비해서 일본말과 한국말로 불렀다. 원래 북한에서 불리던 것을 ‘더 포크 크루세이더즈’가 불려서 일본에서도 유행했던 노래다. 한반도 분단의 아픔을 노래한 이 곡을 일본 청년들이 연습해서 부른 것이다.

임진강 맑은 물은 흘러 흘러내리고 물새들 자유로이 넘나들며 날건만  
내 고향 남쪽 땅 가고파도 못 가니 임진강 흐름아, 원한 싹고 흐르느냐

일본의 참가자 가운데는 역사를 공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청년이 하나 있었다. 그는 모임 동안 한일 관계에 대해 더 많은 대화를 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며 이런 말을 했다.

“한국 친구들과 함께한 소그룹에서 우리 가족 얘기를 할까 말까 끝까지 망설였어요. 사실 우리 부모님은 전쟁 시기에 한국에서 태어나셨어요. 할아버지가 조선총독을 위해서 일했거든요. … 우리나라가 과거에 한 짓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떼제 모임을 마치면서 우리가 화해를 위해 무언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고, 정부와 언론에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줄 필요가 있다고 느꼈어요.”

일본 순례자들은 아베 정권에 화가 나고, 이웃 나라들에게 너무나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을 간직하던 차에 이번 모임에 오게 되었다고 했다. 솔직히 최근의 정치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한국과 중국 사람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스런 마음을 품고 왔는데, 모두들 너무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 주었기에 걱정은 눈 녹듯 사라지고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

금요일 저녁 십자가 주위에서 드린 기도와 토요일 밤 촛불을 밝혀 부활을 경축하는 기도가 이번 순례의 절정이었다. 십자가와 부활로써, 사람들과 민족들을 갈라놓는 두려움과 미움의 장벽을 허물어 화해시키고 하나로 만드시는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평화라고 부른다. 사실 순례자 모두가 우리 신앙의 중심이신 그리스도를 향하고, 침묵 가운데 그 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있었기에 깊은 이해와 소통이 가능했고, 처음 만난 사람들과 우애의 공동체를 이룩할 수 있었으리라.

- 신한열, 「함께 사는 기적」(신앙과지성사) 중에서